



삼성스포츠타임 4일 경기도 용인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드림캠프'를 열었다.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박하나(왼쪽 끝)와 박정은 코치(왼쪽 3번째)가 초등학교 여자선수들에게 포지션별 맞춤 레슨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얘들아, 농구를 즐겨라”

남녀 삼성 프로농구단 재능기부행사 '드림캠프' 현장

‘레전드’ 이상민 감독·박정은 코치 초등학교 유망주들 직접 지도 나서
이감독 “무엇보다 즐기는 게 중요”
박코치 “환경 좋아져 꿈 잃지 말길”

삼성스포츠타임은 4일 경기도 용인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재능기부프로그램인 ‘드림캠프’를 열었다. 2012년부터 시작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선 남자프로농구 삼성과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손을 맞잡고 남자초등학교 3팀(대방·삼광·삼선), 여자초등학교 2팀(수정·화서)을 대상으로 농구 클리닉을 펼쳤다.

●‘레전드’ 이상민-박정은 “좋은 추억으로 남길”

올해 행사에는 한국남녀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이상민(42) 삼성 감독과 박정은(37) 삼성생명 코치가 직접 나서서 초등학교 유망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이 감독과 박 코치는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이 감독은 “나는 어린 시절 고(故) 김현준 선배와 이종희 선배를 동경하면서 자랐다. 고3 때 연세대 입학예정선수 자격으로 농구대잔치에 출전했는데, 그 때 김현준, 이종희 선배의 매치업 상대로 나섰던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이 감독은 이어 “내가 김현준, 이종희 선배와 같은 코트에서 뛰는 경험을 했듯이, 지금 이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농구선수로 성장해 우리 선수들과 같은 경기를 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커서 오늘을 떠올렸을 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미소 지었다.

박 코치는 “성장이, 최경희 선배가 농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나는 선배들과 나이 차이가 커서 함께 코트에서 뛰지는 못했다. 자신이 동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던 어린 선수들을 격려했다.

●즐거면서 성장하는 농구스타가 되여라!

최근 어린이들의 클럽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농구, 축구 등을 양질의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늘었다. 이상민 감독은 “나는 고등학교(홍대부고) 때도 학교에 체육관에 없어서 다른 체육관을 구하지 못할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농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코치 역시 “흙바닥에 주전자 물로 농구장 라인을 그리고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좋아졌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날 열린 드림캠프처럼 프로선수에게 농구를 배우는 일은 이 감독과 박 코치의 어린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 비해 ‘즐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이 감독은 “어린 시절에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보다 농구 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진 만큼 훌륭한 농구선수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용인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유재학 “허일영 부진? 뭘 생각 없다” 허일영 “슛으로 보답” 나홀로 훈련

감독 “슛 보고 선발” 무한 신뢰에
허일영 대표팀 휴가 불구 훈련

남자농구대표팀 유재학(51·모비스) 감독은 지난달 22일 슈터 허일영(29·오리온스)을 합류시켰다. 문태중(39·LG)과 조성민(31·kt)만으로는 대표팀의 공격 활로를 뚫어줄 슈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허일영은 대표팀 합류 이후 대만과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4차례의 연습경기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7월 25일 용인 모비스체육관에서 열린 대만과의 연습경기에선 6개의 3점슛을 던져 1개도 넣지 못했다. 그러나 유 감독은 허일영을 대표팀에서 제외할 마음이 없다.

허일영은 대표팀 합류 이전이던 지난달 10일 소속팀에서 훈련하던 도중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수술 후 2주 가량을 쉬다가 대표팀에 들어간 그는 몸 상태를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했다. 허일영은 “쉬다가 뛰어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 보호 마스크까지 쓰니까 시야도 좁아져 슈팅 밸런스가 잘 맞지 않더라.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야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2개월 반 동안 합숙훈련을 해온 대표선수들의 재충전을 위해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줬다. 2주 가량 합숙훈련에 동참했던 허일영은 ‘몸 만들기’를 위해 휴가 중에도 농구공을 잡았다. 그는 농구선수 출신 박대남(전 삼성)이 운영하는 스칼트레이닝센터를 찾아 유산소운동과 슈팅훈련을 병행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유 감독은 “허일영은 지난 시즌 리그에



남자프로농구 오리온스 허일영은 지난달 소속팀 훈련 도중 코뼈가 부러졌지만 자신을 믿고 뽑아준 대표팀 유재학 감독을 위해 짧은 여름 휴가 중에도 슛 훈련에 매달리고 있다.

사진제공 | KBL

서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인 슈터였다. 몇 번의 연습경기에서 슛이 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뭘 생각은 없다. 상무에서 허일영을 지도한 이훈재 코치에게도 ‘페이스에 상관 없이 꾸준하게 넣었던 선수’라는 애기를 들었다. 오로지 슛만 보고 선발했다. (허일영에게) 부족한 수비력은 전술로 채우려고 한다”며 신뢰를 보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체육공단, 3개 대학과 인력양성 MOU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하 공단)은 스포츠 용·복합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민대, 상명대, 을지대 등 3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스포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추진된 이번 MOU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국민대는 스포츠공학융합학과 대학원, 상명대는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대학원, 을지대는 스포츠관광융합학과 대학원을 각각 개설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15명 내외의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직접금을 지원 받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윌리엄스, 뱅크 오브 더 웨스트 우승

세레나 윌리엄스(33·미국·세계랭킹 1위)가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뱅크 오브 더 웨스트 클래식 단식 결승에서 안젤리크 커버(26·독일·세계랭킹 8위)를 2-0(7-6·6-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윌리엄스가 WTA 투어 대회 정상에 선 것은 5월 이탈리아 로마마스터스대회 이후 3개월만이다. 올 시즌 4번째 우승이다. 프랑스오픈과 윌스턴에서 각각 2회전, 3회전 탈락으로 체면을 구긴 윌리엄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한동안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평형 감각을 잃어 우려를 자아냈지만,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희망을 밝혔다.

캡틴 보잉 선글라스

세상에서 눈을 가장 멋있게 보호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안경점에 없는 유니크 디자인, 독.점.판.매.

남자라면 한 번쯤, 보잉 선글라스, 이세상 모든 캡틴에게 바랍니다.
날은 더워지는데 가족 점퍼를 꺼내 입고 싶어 집니다. 탈 줄은 모르는데 할리오토바이가 갖고 싶어 집니다. 이 모든 게 선글라스 하나 때문입니다. 이토록 잠자고 있던 남자의 아성을 깨우는 선글라스가 또 있을까요? 블랙라이언에서 아침 차게 기획한 보잉 선글라스 캡틴은 일반적인 보잉 선글라스와 소재부터 다릅니다. 약간은 빛 바랜 듯 빈티지한 엔틱스롭의 프레임과 가운데 원형 장식, 빗살 무늬를 더해 역동감을 선사하는 안경다리까지.

제품명 보잉 선글라스 캡틴 색상 메탈그레이 사이즈 Free
회원특가 1개 ₩ 138,000 → ₩ 69,000 (케이스 무료증정)

제품상징 1544 - 0247

스포츠 선글라스 Z

이제 선글라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일부
한국인의 두상에 맞추어 더욱 편하다

스포츠 선글라스의 새강자 블랙라이언
블랙라이언은 아웃도어의 의류의 강자이지만, 스포츠 선글라스의 강자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스포츠 선글라스의 완판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1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입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서양인에 비해 코가 낮고 광대뼈가 더 두드러지며, 얼굴이 다소 큰 한국인의 얼굴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매력적인 디자인 속에 모두 숨겨 두었습니다.

제품명 스포츠 선글라스 Z 색상 블랙(품질), 레드 사이즈 Free
회원특가 1개 ₩ 138,000 → ₩ 69,000 (케이스 무료증정)

제품상징 1544 - 0247

※2개 구매시(캡틴+캡틴, 캡틴+Z, Z+Z) 할인가 99,000적용

강서구 송정역점 오픈(서울특별시 공항동 45-59 Tel 02-2661-6240) / 종로지사 및 종로점 8월말 오픈 예정
블랙라이언 본사매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78-44 3층 대림역 2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여의도백화점 직영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Tel 02-780-7870 /
발매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30-28 (주차가능) Tel 02-522-0247 / 대구 퀸로드점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36-157 2층(3동스포츠존) Tel 053-268-5582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중
Tel 1544-0247

(주)바이원클럽
www.blacklion.co.kr